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2월 17일)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코로나19 확산 국면 연등회 연기론 '무게'

조계종 교구본사회의서 논의… 단체 의견 묻기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불교계 최대 축제인 연등회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 공휴일 지정 이후 가장 빠른 4월 30일로, 연등회는 이보다 1주일 앞선 4월 24~26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봉축행사의 막을 여는 서울 광화문 점등식은 4월 8일이어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을 세운 서울시 입장과도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불교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축행사 차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봉축행사의 백미인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개최 여부를 놓고, 불교계는 연기와 강행의 갈림길에 섰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4월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봉축행사는 국민적 여론의 뭇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떠안은 부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년 같지 않은 행사준비

예정된 연등회 일정 기준으로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이 남았지만, 불교계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질병본부관리본부 등 정부 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간인 향후 2주가 중요하다.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국민에 당부하며, 전국 학교의 개교일도 3월 23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앞으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4월까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지는 미지수인 데다 행사 준비기간도 예년보다 대폭 짧아져 불교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연등회 실무 현장과 일선 사찰들은 행사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매년 연등회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던 해외불교지도자 초청은 취소를 고려 중이다. 이를 담당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해외불교지도자들의 방한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계종이 베트남 불교중앙위원회 예방에 화답하고자 추진하던 베트남불교 연등회 초청도 무산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등회 초청에 베트남 측도 기대감을 표했지만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초청하는 것은 실례"라며 "연등회 일정 변동에 따라 초청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광화문 점등식을 비롯해 연등회 각종 행사에서 플래시몹과 대외홍보 등을 맡는 외국인서포터즈 모집도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모집 홍보를 할 수 없는 데다, 매년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지원율도 급감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포터즈에 지원한 외국인은 모집정원 60명의 절반수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신청해 향후 참가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다.

연등회는 지역단위가 아닌 특정기간 전국단위 동시행사라는 점에서도 행사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초부터 소속사찰 율동강습회를 시작한 광주불교연합회는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광주불교 율동강습회는 약 석 달간 80~100회에 걸쳐 봉축율동을 각 사찰에 알려왔지만, 코로나19로 강습회와 연희단 교육 등 부대행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광주불교연합회 관계자는 "행렬등 제작은 지난해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봉축율동 교육과 각 사찰별 봉축등 제작은 쉽지 않다"며 "학교 개학이 미뤄져 학생들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바이러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1975년 공휴일 지정한 이후
가장 빠른 올 부처님오신날
코로나19로 봉축행사 차질
한 달 늦춘 윤 4월 여론도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 경북, 영남의 축을 이루는 부산 · 경남 등은 현재까지 연등회 일정 연기가 확정되지 않아 예정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계 입장 정리에 주목

이와 관련해 3월 4일 비공개로 개최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는 원로회의, 중앙종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에 의견을 묻고 문체부, 서울시,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봉축행사 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윤4월(양력 5월 30일)로 한 달가량 봉축행사를 늦춰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단일화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현재 윤4월(양력 5월 30일)로 한 달 정도 늦춰 봉축행사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협의회 차원에서 조심스레 총무원에 제안했지만 쉽게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봉축행사의 시기보다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봉축행사가 가라앉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사찰에서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이 이어지고 있다. 스님들의 기도와 함께 유튜브 등을 활용한 가정기도가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사찰에서는 코로나 극복기원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 봉은사가 3월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주문에 거는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봉은사**

조계종 '공공영역 참여 솔루션' 나왔다

포교원 포교연구실 '공익사업 참여연구서' 발간

불교의 직접 포교 외에 사회 공익사업을 통한 포교 방안을 연구한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조사연구 보고서〉와 이 보고서의 부록 성격인 〈공공영역 참여 사례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팜플렛〉도 발간했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불안감과 생존위기, 고통 등에 부응해야 하는 종교의 역할을 바탕으로 사찰의 새로운 포교전략과 정책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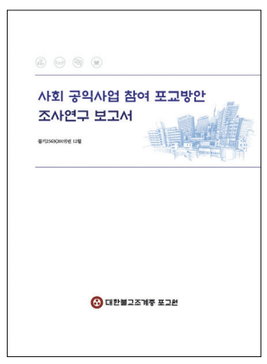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는 △사회공익사업 참여의 필요성 △정부의 사회공익사업 현황 △공공영역 참여 포교 솔루션의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포교솔루션에서는 △사회공익사업 공모를 위한 단체 설립 △자원봉사시스템 활용 △사업실행력 및 지속력 담보 위한 방안 등으로 구분해 설명됐다.

사회공익사업 공모 단체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들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설립 방법과 등록절차, 관리 방안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자원봉사 시스템 활용으로는 1365자원봉사 및 기부포털 활용과 자원봉사자 관리 및 등록 방법, 기부모집단체 가입 및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한다.

끝으로 포교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칭 '공익사업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지역별로 설립에 필요한 기준이 다르기에 이를 지원하는 종합 안내, 행정기관이 불교계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단체 등록 방법 소개
자원봉사 관리 · 지원 안내
센터 설립 및 앱 개발 필요

정부의 새로운 사회공익사업이 공모될 때 지원센터가 불교계를 대표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일선 사찰과 스님들을 연결해주는 구조다. 롤 모델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들었다.

포교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공모사업을 사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불교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의 개발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공모사업의 인력 취업 및 사업공모에 관한 앱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가 감수를 맡았고, 장재혁 前국회 보좌관불자회장과 한명우 동국대일산병원 대외협력관, 장상규 웅부문화원장 등이 관계 전문가들이 자문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중의 불안감, 생존위기, 고통에 부응하지 못하는 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사찰의 새로운 포교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함으로써 불법(佛法)의 영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지홍 스님은 "이번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조사연구 보고서〉와 사례집을 참조해 각 상황에 맞는 사회 공익사업 접근을 통해 포교의 내비게이션 역할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보고서를 요약한 팜플렛을 각 교구본사 등으로 발송해 스님들에게 배포된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INDEX 코로나19 불교계 대응 2 · 3면 | 코로나19 최전선 동국대 경주병원을 가다 5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찾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1일차(9월 10일 목)	2일차(9월 11일 금)	3일차(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